인간보다 더 인간적인 책 속의 동물들

책에 비친 동물 이야기

동물 이야기, 동물 사진집 등 동물 자체에 초점을 맞춘 기획물들이 출판의 한 장르로 자리잡고 있다. 여기에는 사회생물학의 연구축적, 애완동물 붐으로 형성된 동물에 대한 애정, 생태담론과의 연계 등 몇가지 사회적 요인이 있다. 동물의 천국인 어린이책 분야에서도 이런 경향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동물과 출판의 내연관계는 깊다. 동양 최고(最古)의 신화지리지인 《산해경》도 일종의 '상상동물 사전'이다. 고대인들에게 동물을 기록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했을까? 알타미라 동굴벽화에 그려진 멧돼지는 발이 여덟개나 된다. 최초의 화가들은 동물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그려 그 야수성을 꼼짝못하게 한다고 믿었을 것이다.

가축이 되거나 창살에 갇혀 구경거리가 되기 이전에도 동물은 신화, 민담, 전설이라는 우리에 가둬져왔다. 담배 피는 호랑이, 꾀를 내는 고양이, 은혜 갚는 두꺼비 등 특정 동물마다 의인화된 특성이 생겨났으며 여기에는 동물에 대한 인간의 기대, 공포, 동정 등 복합적인 심리가 개입돼 있다. 인간이 동물사회의 일원이기를 포기한 순간부터 인간은 동물을 표상하기 시작했으며, 이렇게 생산된 동물이야기는 동화나 우화를 통해 인간의 삶과 관련을 맺어왔다.

인간을 닮은 동물들에게 독자들 공감해

책 속에 등장하는 동물들은 인간이 자연을 어떻게 인식해왔는지를 역사적으로 증언하고 있다. 그것은 대략 우의적 픽션화(동화), 과학적 대상화(종별 연구물, 동물도감), 동물의 인간화(에세이)라는 순서를 밟는 듯하다. 최근에 나오는 동물 관련서들은 주로 동물의 인간화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다.

얼마 전 《THE BLUE DAY BOOK》(브래들리 트레버 그리브, 신현림, 바다출판사)이라는 동물사진집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오랑우탄부터 물개, 도요새에 이르기까지 동물들의 온갖 표정을 순간포착해서 보여주고, 그에 걸맞은 짧은 문구를 덧붙인 형식이었다. 사람들은 우울하게 턱을 괴고, 부끄러워하며 얼굴을 가리는 동물들의 인간적인 표정에 공감했다. 《다이고로야, 고마워》(오타니 준코, 구혜영, 오늘의책)는 팔다리 없이 태어난 장애원숭이가 한 인간가족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과정을 그린 휴먼스토리다. 두 책이 독자들에게 뜻밖의 호응을 얻자, 동물들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다룬 《아름다운 이야기》(제임스 헤리엇, 김석희, 웅진닷컴), 《안녕 베르나》(군지 나나에, 오원석, 창해) 등도 대중들의 사랑을 받았다.

최근 동물을 주제나 소재로 한 책들이 출판의 한 영역으로 급속히 자리잡아가는 현상은 몇가지 관점에서 분석할 수 있다. 첫째, 사회생물학의 대중침투 현상을 들 수 있다. 사회생물학이란 인간을 포함한 모든 동물의 사회행동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다. 1975년 에드워드 윌슨이 제창한 이 학문은 1990년대 후반부터 우리나라에 소개되기 시작했다. 《사회생물학 논쟁》(프란츠 부케티츠, 김영철, 사이언스북스) 같은 이론서부터, 제인 구달이나 데즈먼드 모리스 같은 동물학자들의 에세이 및 자서전이 번역 소개됐고, 사회생물학을 전공한 국내학자들이 여러 잡지에 발표한 칼럼이나 에세이가 책으로 묶이면서 동물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다.

애완동물 붐에는 동물에 대한 이중적 태도 숨어 있어

지난 몇년간 침팬지학자들의 에세이가 독자들에게 주목받아왔다. 이는 생태담론의 대중화에 비롯된 바가 크다. 제인 구달이 펴낸 《희망의 이유》(최재천 외), 《인간의 그늘에서》(박순영, 이상 궁리), S. Y. 몽고메리의 《유인원과의 산책》(김홍옥, 다빈치) 등이 그 예들이다. 인간의 생존을 위해서는 자연과 공존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생기기 시작한 시점에서, 자연 가운데서도 인간과 가장 가까운 원숭이 사회가 평화롭게 유지되는 모습은 일종의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이 책들은 《이타적 유전자》(매트 리들리, 신좌섭, 사이언스북스)처럼 인간의 본성과 사회성을 동물과 비교한 책들과 함께 더욱 설득력을 얻었다.

대중들이 동물에게 애정을 느끼는 사회현상은 냉정한 검토의 대

상이기도 하다. 국내 애완동물 시장의 규모가 수조원대에 올라서면서 애완동물 도감이나, 애완동물 기르는 방법을 제시한 책들이 쏟아져나오고 있다. 몇 년째 지속되고 있는 이 애완동물 '붐'은 일본의 사례와 유사한 부분이 많다. 마크 실링은《일본대중문화 여기까지 알면 된다》(김장호, 초록배매직스)에서 동물에 대한 일본인들의 태도를 분석하는데, 이는 우리에게도 어느 정도 해당한다. 즉, 가둬 놓은 것은 '귀엽고', 야생 그대로의 자연은 여전히 '무섭다'는 이중적 태도가 그것이다. 개, 고양이, 햄스터, 도마뱀 등은 동물애호가의 품에 안기면서부터 야생성을 반납하고 인간 가족의 일원이 된다. 애완동물의 인간화는 그것이 캐릭터 상품으로 개발되면서 더욱 심해진다. 동물사진집이나 휴먼스토리에서처럼 동물이야기가 일말의 경계나 거리감도 없이 그대로 인간이야기로 치환되는 것에는, 붐 혹은 유행처럼 형성된 동물에 대한 맹목적인 애정이 한몫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독립적인 캐릭터로 재탄생하는 어린이책 속 동물들

동물과 출판의 본격적인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어린이책을 빼놓을 수 없다. 유아용 단어책이나 사물인지책에는 으레 동물주인공이 등장한다. 또 친근한 동화 캐릭터 가운데 다수가 미키 마우스, 도날드 덕, 피터 래빗 같은 동물들이다. 어린이책에 나오는 동물은 무척 다양하며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어린이책에 동물이 많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 심리학자들은 아이들이 동물, 식물뿐 아니라 사물과 자연현상에도 생명이 있으며, 자신과 감정을 나눌 수 있는 존재로 여긴다는 점에서 그 이유를 찾는다.

하지만 아이들에 대한 어른들의 교육과 통제라는 이데올로기 차원에서 보자면 문제는 달라진다. 어른들은 아이들을 동물 같은 존재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어, 어떻게 하면 문명화된 인간처럼 행동할지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동물들에게 어떤 전형적인 성격을 부여한 뒤 극적이고 압축적인 사건을 겪게 하면서 그 캐릭터와 사건의 상징을 부각시키는 것이 초기 동물 이야기의 특성이었다. 어린이와 동물을 같은 차원에 놓고 보는 시각은 오늘날 어린이 출판에서도 여전히 유효하다.

어린이책 번역가이자 기획자인 김서정씨는 〈어린이문학과 동물〉에서 국내 어린이책에 등장하는 동물을 우화적 유형, 인간의존적 유형, 상호교류적 유형, 도구적 유형, 독립적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동물로서의 본성에 충실하면서 자기 정체성을 찾으려는 동물을 다룬 독립적 유형의 비중이 최근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이다.《마지막 박쥐 공주 미가야》(이경혜 글 · 양혜원 그림, 문학과지성사),《버들붕어 하킴》(박윤규 글 · 한병호 그림, 현암사),《마당을 나온 암탉》(황선미, 사계절),《햄스터 땡꼴이의 작은 인생 이야기》《자기가 쥐인 줄 알았던 병아리》(이상 소중애, 예림당),《머피와 두칠이》(김우경, 지식산업사)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책에서 동물들은 자유로운 삶을 찾아 인간이나 다른 동물, 자연과 대결한다. 인간은 동물에게 대결의 빌미를 제공하거나, 관찰과 풍자, 극복의 대상이 된다. 이런 동물들의 자기정체성 찾기류의 책들은 일단 동물에 대한 성실한 관찰과 애정을 바탕으로 씌어진다는 점에서 다른 유형과 구별된다.

동물을 빗대 교훈적인 내용을 전달하는 의인화 동화는 점점 줄어드는 추세인 반면, 판타지 동화에 동물을 끌어들이는 예는 점점 늘고 있다.판타지 동화에 그려진 동물들은 의인화 동화나 일상적 재현 속의 수동적 모습과는 여러모로 구별된다. 최근 완간된《고양이 학교(전5권)》(김진경, 문학동네)는 판타지 동화 속 동물주인공의 역할과 기능을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예다. 이 책에는 생각하고 말하고 마법도 부리는 고양이들이 나온다. 하지만 이는 의인화된 고양이, 고양이로 재현된 인간이 아니다. 음과 양을 동시에 지닌 신비로운 존재, 신화 속에 표현돼왔던 고양이의 정체성을 끝까지 잃지 않는다. 샴 고양이, 노르웨이 숲 고양이, 버마 고양이 등 각양각색 고양이가 등장하지만, 이들이 어린이와 소통하는 방법은 매우 쌍방향적이다. 이를테면 수정고양이 버들이가 주인공 민준에게 편지를 보내는 장면 같은 경우다.

어른들은 판타지를 실재계의 저편으로 받아들이지만 아이들은 그렇지 않다. 아이들은 신화적이고 무의식적인 모습을 실재의 그것으로 경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 때문에 판타지 동화 속에 그려지는 동물들은 인간이라는 옷을 빌리지 않고서도 인간과 동등하게 친구가 될 수 있다. 게다가 특별한 재능을 부여받은 동물들은 어린이들을 환상의 무지개 속으로 이끄는 적극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인간의 '잃어버린 원형'으로서 동물 강조돼

동화작가들은 사람보다는 동물을 내세우는 것이 쓰기도 편하고 주제 전달의 측면에서 효과적이라고 입을 모은다. 인간 사이에는 편견이 끼어들게 마련이지만 동물은 그렇지 않다. 또 동물들은 종마다 다양한 습성을 지니고 있어서, 그것 자체가 좌충우돌하는 아이들과 닮았고 신선한 소재가 된다. 해외 번역물 가운데 유난히 동물이야기가 많은 이유는 무엇일까? 한 어린이책 편집자는 "동물은 지역색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덜 낯설다. 같은 또래의 외국 아이들보다는 자기가 익숙하게 봐왔던 개나 고양이 등에 더 끌린다"며 그 속사정을 전한다.

어린이책이건 어른들을 대상으로 한 책이건, 요즘 동물들이 읽히는 가장 큰 이유는 그것이 '감동'을 주기 때문이다. 동물이야기 또한 대중소설처럼 독자들 심리 상태의 허약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가시고기》(조창인, 밝은세상)에 그려진 부성애 강한 아버지 같은 현대판 영웅의 역할을 동물 캐릭터들이 대신 해내는 셈이다. 그리고 군집을 이루고 살아가는 동물들이 인간이 잃어버린 원초적 공동체를 보존하고 있다는 분석도 새겨들을 만하다. —강성민 기자